



통영 장사도해상공원 섬아기 집과 야외공연장. (오른쪽 아래)

자연과 인간의 공존... 통영 장사도해상공원

경남

경남 거제시 앞바다에 있는 장사도라는 섬이 있다. 한려해상 국립공원의 일부인 이곳은 개발을 통해 관광지로 거듭났다. 행정구역상으로는 경남 통영시 한산면 매죽리지만, 거제가 더 가깝다. 거제시 대표항에서 10~15분 배를 타고 가면 닿을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다. 1980년대까지는 14채의 민가가 있었고, 83명의 주민이 살았다고 한다. 현재 거주하는 주민은 없다. 개인 소유의 섬으로 상주 인원은 4~5명, 전체 직원은 30여명이다.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와 '따뜻한 말 한마디', 예능프로그램 '런닝맨'도 이곳에서 촬영을 했을 만큼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한다. 장사도해상공원 '까멜리아(이하 장사도)'는 지난 2012년 개장했다.



수백년생 동백터널·미로·맨발정원... 천연기념물 팔색조

'별에서 온 그대' 촬영 유명세... 통영음악제 프린지 공연

입구 선착장서 출구 선착장까지 2시간 '동화 속 여행'

동화같은 별에 온 그대



2

003년 허가를 받은 섬은 2005년부터 공사를 시작해 7년간의 공사 과정을 거쳐 사람들에게 마침내 '속살'을 드러냈다. 장사도는 10만여 그루의 수 백년생 동백나무와 후박나무, 구실잣밤나무와 천연기념물 팔색조, 동백새, 풍란과 석란이 자라거러다. 만약 섬에서 사람 키보다 큰 식물을 본다면 최소 몇십 년 된 식물이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장사도는 입장 때 나눠주는 탐방안내도 책자를 보면서 번호 순으로 탐방하면 효율적인 관람을 할 수 있다. 섬에는 승리전망대, 부엉이전망대, 달팽이전망대, 다도전망대, 미인도전망대 등 곳곳에 전망대가 있다. 또 온실, 동백터널길, 미로정원, 맨발정원, 장미터널 등 곳곳에 볼거리들이 즐비하다.

특히 죽도국민학교 장사도분교, 섬아기집, 작은교회는 주민들이 거주할 당시처럼 복원해 뒀으며, 장사도분교 운동장은 분재원으로 탈바꿈했다. 이와 관련, 장사도해상공원은 "학교와 섬아기집은 예전 모습을 복원하고 건축물은 나무가 없는 빈 땅을 이용한 건축물이며, 돌담은 섬 내의 산석을 이용해 옛길을 복원하고 지형지물을 보존 활용했다"고 설명한다.

별에서 온 그대 촬영 현장이기도 한 야외공연장은 10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다. 통영국제음악제 기간에는 프린지 공연도 열린다. 다만 체류 시간 때문에 관광객들은 공연을 모두 보지 못하고 일부만 보고 자리를 떠야만 한다.

"장사도의 추억을 전할 수 있는 메일로드도 있다. 메일로드 입구에는 유지환의 '행복' 시비가 서 있다. 염서는 누비하우스와 카페테리아에서 판매한다. 장사도해상공원 기획홍보부 권대환 부장은 "관광객들이 원하는 날짜에 보낼 수 있도록 하려 했으나 보관상 어려움이 있다. 느린 우체통 역시 같은 문제가 있어서 도입하지 못했다"고 했다.

장사도의 총면적은 39만131㎡지만 개발 면적은 9만 8000㎡에 불과하다. 향후 개발 계획은 있으나 체류시간이 2시간밖에 안돼 장기 과제로 남겨둔 상태다. 2시간 동안 입구 선착장에서 출구 선착장까지 2.5km를 다 둘러볼 수 있지만 사진 찍고 자연풍경을 감상하기엔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이다. 관광객들의 출입은 통제하고 있지만 옛 주민들이 다니던 길들은 아직 그대로 남아 있다. 모든 것을 다 관람하려고 하기보다는 볼로그나 탐방안내도를 보면서 주요 포인트만 찾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장사도는 사시사철 상록수를 자랑한다. 봄에 가족 단위 관광객이 많고, 여름 휴가철이 성수기이긴 하나 겨울에도 관광객들이 끊이지 않는다. 동백을 보기 위해서는 2월 중순부터 4월 초가 좋다. 동백터널이 그늘 지역이어서 꽃이 늦게 피기 때문이다.

장사도에서는 입구 선착장과 출구 선착장의 위치가 다르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권 부장은 "관광객들 동선이 겹치지 않기 위해 내리는 항구와 타는 항구가 다르다"고 말한다. 하지만 몸이 불편한 관광객들에게는 이동거리가

만만치 않다. 따라서 장사도해상공원은 입구 선착장과 출구 선착장을 잇는 돌레길 조성도 계획 중이다. 장사도에서는 길을 잃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길에 흰색 화살표가 표시돼 있으며, 혹시나 일행과 멀어지더라도 화살표만 따라가면 출구 선착장에 다다를 수 있다.

섬은 지난 2014년 '별에서 온 그대' 촬영지로 유명세를 탔다. 불과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 세월호 침몰 사고가 일어나면서 관광객 감소라는 직격탄을 맞았다. 아직 최고 관광객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았지만 중국을 중심으로 해외 관광객들도 꾸준히 찾고 있다. 별에서 온 그대는 중국 인터넷 TV아이치이로 방영되면서 폭발적 인기를 모았으며, 1월 29일부터 중국 지상파로 방송되면서 올해 더 많은 중국 관광객들이 장사도를 찾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1월 중순 김우빈·수지 주연의 드라마 '함부로 애틋하게' 촬영 팀도 장사도를 다녀갔다.

장사도해상공원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더불어 인간이 공존하는 문화해상공원'임을 강조한다. 허가 없이는 나무 한 그루도 못 베기 때문에 최대한 자연미를 그대로 간직하려고 노력했다. 장사도에서 경음악과 안내방송이 흘러 나오는 스피커도 대부분 스톤 스피커이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나무와 식물 사이에 있는 스피커를 발견하기란 쉽지 않기에 찾아보는 재미도 쏠쏠할 듯싶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경남신문 권태영 기자 / 사진=경남신문 김승권 기자

장사도에 가려면

유람선 출항 시간 확인하고 소셜커머스에서 할인받자

반드시 유람선을 타야 한다. 현재 장사도를 오가는 여객선은 없다. 통영시에서는 통영유람선터미널(통영시 도남동 269-38, 홈페이지 www.uram.or.kr, ☎055-645-2307)에서 탈 수 있으며, 거제시에서는 저구항(거제시 남부면 저구해안길 16-6 지선해역, 홈페이지 www.nbmmid.kr, ☎055-632-4500), 대표항(거제시 남부면 대표길 82, 홈페이지 www.daepocruise.com, ☎055-633-9401), 가배항(거제시 동부면 거제남서로 2269, www.jangsadohaewoon.co.kr, ☎055-638-1122) 등 세 곳에서 이용할 수 있다. 유람선 이므로 출항 시간이 비정기적이기 때문에 사전에 시간을 문의하고 이용하면 된다. 소셜커머스는 온라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티켓을 예매할 수 있다. 어느 항에서 유람선을 이용하는 장사도 입장료(대인 8500원, 중·고등학생 7000원, 소인(37개월~13세) 5000원)는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장사도 관람시간은 동절기인 10월~3월은 오전 8시 30분~오후 5시, 하절기인 4월~9월은 오전 8시~오후 7시이다.

Advertisement for IPALG waterproofing services. It features a large image of a house with a green roof and text in Korean. Key phrases include '특허방수' (Patented Waterproofing), '하자없이 20년은 너끈히가는' (Without problems, 20 years is easily manageable), and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Tria-Shmer® Insulation Composite Sheet Waterproofing). It also lists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branches and a QR code.